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4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48

방목·왕래 잦았던 들판같은 오름

입력 : 2004. 09.24. 00:00:00



▲들판같은 정상부와는 달리 큰드레왓 서남사면에는 성  
널오름의 성벽에 버금가는 선녀바위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 큰드레왓·작은드레왓

1박 2일의 한라산 탐사였다. 지난달 14일 오후 영실을 출발하여 수행굴~선작지왓~백록샘~붉은오름~윗세오름에 도착한 탐사팀은 15일 한라산 정상~장구목~삼각봉을 거쳐 큰드레왓과 작은드레왓까지 강행군하는 탐사를 실시했다.

장구목과 삼각봉 중간지점에서 하산코스를 잡고, 구상나무 숲을 지나 조릿대가 무성한 능선을 타고 어승생오름 방향으로 반시간 남짓 내려오니 큰드레왓이 버티고 있었다.

큰드레왓은 조릿대 천국이다. 평평한 정상부분은 물론 사면 전체가 조릿대로 들어차 있었다. 오름 정상은 2~3천평 넓이의 평지로 돼 있고, 주변의 시야가 트인 것으로 봐서 큰드레왓에 서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평지 가운데에 위치한 2~3미터 높이의 암괴가 정상지점을 알려준다.

김종철의 '오름 나그네'(1995)에서도, '큰드레왓에는 오름이라고 할 만한 두드러지게 산형을 갖춘 것은 없다. 큰드레왓 동쪽은 서탐라골 건너 개미목밭, 흔히 말하는 개미등이다. 지금이야 이용하는 이가 없지만 옛날에는 제주시에서 서탐라골 능선을 따라 큰드레왓~장구목을 거쳐 서귀포로 넘어가는 한라산 횡단도로가 통해 있기도 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큰드레왓은 300년 이전에는 목장지대였다.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를 보면 큰드레왓과 작

은드레왓은 빨강계 방목장으로 표시돼 있다. 드레왓은 들(들판)과 에(처소격 조사)와 왓(밭)이 합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한자로는 대두리봉(大斗里峰)이다. 큰드레왓은 동쪽에는 탐라계곡 상류, 서쪽에는 Y계곡, 북쪽에는 아흔아홉골에 걸쳐 있는 고원지대로 들판처럼 평평하여 방목 적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2차탐사에서는 큰드레왓의 다른 면모가 드러났다. 서남사면에 깎아지른 듯한 선녀바위가 버티고 있었고, 그 높이와 규모면에서 성널오름의 석벽보다 훨씬 크고 웅장해 보였다.

어리목 등산로로 접어들어 어리목계곡 상수도 보호 수로를 거쳐 50분 정도 가면 기슭에 이를 수 있다.

작은드레왓은 큰드레왓에서 왼쪽에 Y계곡을 두고 하산할 경우 한시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하지만 원시림 같은 산림지대를 뚫고 하산길 찾기가 쉽지 않아 큰드레왓 도착시간부터 작은드레왓 탐사를 마칠때까지 무려 6시간이나 소요될 정도였다.

화구 없는 원정구로서 서사면은 어리목 광장에 면해 있고 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동어리목 골로 내리지른다. 그리고 북쪽으로 뻗친 등성이는 아흔아홉골을 형성한다. 큰드레왓보다 몸체가 작아 작은드레왓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소두리봉(小斗里峰)이라 하고, 풍수적으로 금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금봉(金峰)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작은드레왓은 결코 작은 오름이 아니다. 어리목광장에서 한라산 정상쪽으로 바라보면 우뚝 솟은 오름이 바로 작은드레왓이다. 비고는 280m로 상당한 높이와 경사를 가졌고, 분화구 능선은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큰 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등성이는 아름드리 적송(赤松)들이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며, 그 아래에는 조릿대 또한 지천으로 자라고 있다. 제주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상부 한 칸엔 이름 모를 묘 한 기가 자리하고 있고, 정상에서는 장구목과 민대가리오름을 각각 사이에 두고 발원하는 어리목계곡의 흐름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 [전문가 리포트]울창한 한라산 소나무림

한라산 해발 1,700m의 윗세오름에서 출발하여 장구목과 큰드레왓, 작은드레왓을 걸쳐 어리목으로 하산하는 도중에 해발1400m 지점부터 울창한 소나무림을 만날 수 있었다. 나무높이가 15~18m 내외이며 가슴둘레는 30~50cm 정도인 소나무림이 해발 1,100m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관형, 지하고, 곧게 자라는 모습 등은 전국 어느 곳의 우량한 소나무림 못지 않았다.

한라산에는 해발 600m 이상 높은 장소에는 주로 소나무가, 그 이하에는 곰솔이 자라는데,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다른 이름으로 나무껍질이 붉다하여 적송(赤松), 주로 육지에 자란다고 하여 육송(陸松), 비슷한 곰솔보다 부드럽다고 해서 여송(女松) 등으로 불리며 기타 이름으로 금강송, 미인송, 춘양목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는데 모두 소나무의 다른 이름이다.

소나무의 분포는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동북지방의 압록강 연안, 산둥반도, 일본의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혼슈(本州) 등에서 자라고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은성군에 이르기까지 고산지방을 제외한 온대림지역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자라며, 단일수종으로는 우리나라 수종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나무다. 산성토양이나 척박한 토양에도 잘 견디어 생존력이 뛰어난 나무이지만 피음에 약하여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와 경쟁에 뒤져 생태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뀌게 된다. 즉 소나무림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이 지역이 토양에 햇빛이 닿을 정도로 황폐화되거나 산불 또는 인위적인 간섭이 행하여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라산의 소나무림은 과거에 한라산에 방목이 행하여졌거나 산불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증거이다.

소나무의 이용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료재와 건축재, 조선재 기타 토목재 등에 다방면으로 이용되며 연료재 중 소나무는 화력 및 연소시간 등이 다른 나무보다 월등한 장점이 있어 과거 마땅한 산업연료가 없을 때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최고의 연료로 꼽힌다.

제주도의 근래 소나무에 대한 관리기록은 1920년대 일제시대에 강원도와 충남 안면도에서 도입한 소나무를 조림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한 장소와 잔여 본수 등은 확실하지 않아 정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침엽수 중 가장 중요한 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의 체계적 관리와 조림을 위하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 생장이 우수하고 형질이 우량한 소나무들을 선발하고 증식시켜 종자를 채취하는 채종원을 충남, 강원도 및 제주도 등지에 조성하여 우량한 소나무와 곰솔의 조림용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강영제 탐사위원(난지연구소/식생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